SK이노베이션, 계묘년 첫 일출 온라인 생중계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첫 일출 장관이 SK이노베이션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번 생중계는 김세연 SBS스포츠 아나운서가 '부산 해돋이 현장'과 '실시간 화상 참여자'를 연결하는 3원(元)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3년 만에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

대한항공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새해 첫 고객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KE012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오전 5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유병호(51)씨가 계묘년 새해 첫 고객으로 선정됐다. 대한항공의 새해 첫손님 유병호(왼쪽)씨와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카겜, 우마무스메 이용자와 환아 치료비 공동 기부

카카오게임즈와 환아 치료에 기부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환아 치료를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왼쪽부터) 카카오게임즈 안병도 대외정책실장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기부참여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 서울 세브란스 재활병원 김용욱 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게임

중기부

1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부터 신년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판매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아울러 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승호 기자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신년선물

넷마블은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에서 풍성한 혜택을 증정하는 '2023 신년 캠페인'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넷마블은 1일 오전 4시부터 1월 4일 오전3시 59분까지 게임에 접속하면 1회에 한해 성정석(게임재화) 30개를 증정하고, 매일 로그인 보너스와 함께 3일차 접속 시에는 희귀 아이템 '성배'를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부음

▲김복심(90세)씨 별세, 민경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경모·경애·경희·경자 모친상, 김연순·구나겸 시모상, 김광욱·최수석·신병효 빙모상=1일, 해남현대장례식장 3호, 발인 3일 오전 9시. 061-537-2222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선종… 전세계 애도 물결

생전 사임 보수파… 향년 95세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식 집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31일(현지시간) 95세로 선종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명예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전 9시34분 바티칸의 마테에클레시아 수도원에서 선종했음을 슬픔 속에 알린다"고 밝혔다.

베네딕토 16세의 본명은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Joseph Aloisius Ratzinger)이다. 요제프 알로이지우스 라칭거는 1927년 4월 16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에른 주 마르크틀 암 인에서 경찰관인 요제프 라칭거와 식당 종업원이던 마리아 라칭거의 2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베네딕토 16세는 뇌졸중과 심장병 등 지병을 지니고 있었다. 베네딕토 16세의 전기를 쓴 작가인 존 앨런에 따르면 그는 1991년 뇌졸중 후유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으며 심한 현기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오래전부터 심장박동기를 착용해왔다는 사실도 사임 직후 알려졌다.

◆제256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2005년 4월2일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했다. 그해 4월 19일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라칭거 추기경은 78세의 나이에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로 선출됐다. 베네딕토 16세는 당시 상황을 "마치 나에게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라고 회고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황 하드리아노 6세(1522?1523) 이후 482년 만의 독일인 교황이다. 가톨릭 역사상 여덟 번째 독일인 교황이다.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4월 25일 일반신자들을 알현하던 중 자신이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일 오후 명동대성당 지하에 마련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베네딕토 15세와 영적인 유대를 맺기 위하여 베네딕토 16세라 불리기를 원했다. 그분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란의 시기에 교회를 이끄셨던 분이다. 그분은 용기 있고 진정한 평화의 예언자이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대담한 용기로 전쟁의 비극을 막고 전쟁에 따른 불행한 결말들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 사이의 화해와 조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저의 사목으로 삼고 싶다라고 밝혔다.

◆스스로 교황 직을 포기한 교황

2000여 년 가톨릭 역사상 스스로 교황 직을 포기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그중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지난 2013년 2월 11일 스스로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추기경회의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거듭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더는 교황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에 이르렀다"면서 "완전한 자의에 의해 추기경단이 나에게 부여한 성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직의 포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나를 도와준 분들의 사랑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앞으로의 삶을 기도에 전념해 신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7일후 홀연히 교황직을 물러났고 '명예 교황'(emeritus pope)에 추대되었다. 교황이 생전에 사임한 사례는 1294년 첼레스티노 5세 이후 719년 만의 일이다.

◆현 교황이 전 교황 장례식 집전

2000년명예교황 장례식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직 교황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명문화돼 있지만, 그 절차가 명예교황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 절차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 미사를 집전하면서 시작된다.교황직은 종신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현직 교황이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주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사임 뒤 '어부(초대 교황인 예수의 제자 베드로)의 반지'로 불리는 교황의 인장 반지에 이미 'X'자를 새겨넣었던 만큼 이 반지를 그렇게 파기하는 절차는 생략된다.

교황은 사후 묻히고 싶은 곳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전기 작가 피터 시왈드에 따르면 그는 생전 전임 교황 대다수가 잠들어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역대 교황들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초대 교황인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가까이 머물기 위해 그의 무덤이 있는 성베드로 성당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계묘년 첫 "응애~" 새해둥이 3명 동시 탄생

여아 1명·남녀 쌍둥이 태어나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올 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아기의 대면 만남이 이뤄졌다.

계묘년 1월 1일 0시 정각 차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 남아 짱짱이(태명)와 엄마 손은서씨·아빠 김정섭(39세)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복동이(태명)가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짱짱이·짱순이 엄마 김현정씨는 "기다렸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대견하고 기쁘다"며 "아이 아빠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오지 못했지만, 새해 첫 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우리 쌍둥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복동이 아빠 김정섭씨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차병원도 출산의 기쁨을 전했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주치의는 "저출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소중하고 귀한 아기 탄생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첫 아기의 탄생과 함께 출산의 기쁨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해 첫 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J대한통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공개
車·시설 중심 중장기 전략 수립

CJ대한통운이 물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와 핵심 전략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CJ Logistics Net-Zero Report 2022)'를 물류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CJ대한통운은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넷제로(Net-Zero)를선언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ESG전략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2030년까지 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되는 사업 영역을 분석한 결과 물류사업 특성 상 화물차 등 운송 수단과 물류센터 등 시설물에서의 전력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각각 약 52%,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검토를 바탕으로 CJ대한통운은 차량과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했다.

CJ대한통운은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친환경 차량 전환과 운송 효율화를 통해 감축 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연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 TES물류기술을 기반으로 최적경로 운송체계를 구축한다. 물류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인 만큼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하고, 기존 건물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적용한다.

CJ대한통운 직원이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CJ대한통운

/김승호 기자 bada@